

제 2 강

“귀납적 성경읽기의 실제”

A. 본문 관찰(Observation)

1. ‘관찰’이란 무엇인가?

관찰은 귀납적 성경읽기의 첫 번째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바를 발견하는데 관심을 둔다. 지난 1강에서 살펴보았듯 성경의 문체(文體, Style)에 따라 관찰의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대략적으로 사건문(事件文, Story)의 경우, 보통 육하원칙(六何原則, 5W-1H)의 관점에서 본문을 살핀다. 이때 본문의 내용이 보다 입체적으로 살아난다. 반면 사상문(思想文, Discourse)의 경우는 본문에 사용되는 단어들, 반복되는 표현, 문장 내의 문법 관계(강조, 대조, 은유 등) 등을 관찰한다. 더 나아가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원한다면,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 접속사를 통한 논지의 흐름 등도 주목해 봐야 한다.

2. 사건문 관찰 방법

귀납적 성경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먼저 성경을 읽는 것이다. 성경을 세밀하게 관찰하기에 앞서 여러 번 해당 성경을 정독하는 것이 우선이다. 객관성을 갖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을 빼고는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다. 이렇게 친근하게 읽은 후, 본문이 사건문일 경우 앞서 살펴본 육하원칙의 질문을 활용하며 본문을 세밀하게 관찰해 본다.

- 1) 누가(who)? _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인물들을 이해하는 힌트들을 동시에 찾아본다. [ex / (수2:1)¹ 라합 ← 기생, 여리고성에 거주함]
- 2) 언제(when)? _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시간에 관한 질문이다. 물리적 시간을 알 수 있다면 좋고, 불분명할 때는 사건의 흐름 속에 어떤 시점인지를 파악해도 도움이 된다. [ex / (막1:35)²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 늦게까지 병을 고친 다음 날 새벽]
- 3) 어디서(when)? _ ‘어디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 장소에 관한 질문이다. 혹시 이동 중이라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 / (수10:5)³ 여호수아의 남방 정벌 [\[별첨-1 참고\]](#)]
- 4) 무엇을(what)? _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건들의 순서와 그 사건에 관여하는 인물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한다. [ex / (삼상15:19)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 → 탈취하기에 급급함 → 악을 행함]
- 5) 어떻게(how)? _ ‘어떻게 그 사건이 발생/진행 되었는가?’ 과정과 방법을 관찰하는 질문이다.
- 6) 왜(why)? _ ‘왜 그런가? 왜 그 장소일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모든 관찰 과정의 질문.

¹ 수2:1_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² 막1:35_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³ 수10:5_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⁴ 삼상15:19_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연습본문] 누가복음 8장 42b~48절

- 1) 누가(who)? *예수(42)
*여자 ← 12년 혈루증 투병,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43)
*무리들
*베드로
- 2) 언제(when)? *가실 때 ← 어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42)
- 3) 어디서(when)? *길 위에서
- 4) 무엇을(what)? *예수 →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심(44)
- 5) 어떻게(how)? *여인 →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땀(44)
*예수 → 찾으심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45)
→ 사죄선포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48)
- 6) 왜(why)? *여인은 왜 예수께로 나왔을까? *여인은 왜 예수의 뒤로 왔을까?
*예수는 왜 여인을 찾으셨을까?
*예수는 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나?(48)

또한 이 관찰의 과정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땅고르기 작업도 있다. 바로 성경의 배경과 저자, 지리적 위치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경개관’ 이하다. [귀납적 성경읽기에는 <열은 성경개관>(2012, 조이선교회)을 추천한다]

3. 사상문 관찰 방법

지난 강의에서 요약한 사상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사상문이란 기록자가 어떤 사상이나 메시지를 논술 혹은 운문(韻文, poetry)의 형태로 기록한 글의 형식을 넓게 묶은 개념이다.** 사상문은 분명한 주제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독자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기록자 또는 화자를 통해 어떤 메시지(주제)를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관찰을 집중한다.

이런 문체의 글에는 사용되는 단어들, 반복되는 표현, 문장 내의 문법 관계(강조, 대조, 은유 등) 등이 주요한 표현 방식이다.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 접속사를 통한 논지의 흐름을 주목해 봐야 한다. 사상문에는 편지글, 시, 노래, 잠언, 예언, 등이 포함된다.

- 1) 동사가 있는가? _ 사상문에서 동사는 매우 중요하다. 동사를 통해 화자의 직접적인 요청, 명령, 주장들을 파악할 수 있다. [ex / (엡5:18)⁵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수동태/시제)]
- 2) 주어와 목적어 _ 한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이해할 때, 주제의 흐름과 선후관계, 메시지의 주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ex / (엡2:1, 2-3, 4-7) [별첨-2 참고] 하나님, 너희를]
- 3) 반복어(단어, 구) _ 반복되는 단어나 구문은 화자가 강조하고픈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ex / (엡2:1, 2-3, 4-7) [별첨-2 참고] 그리스도와 함께, (창5:1-32) [별첨-3 참고] 흐름 속에 담긴 여울]
- 4) 비슷한 단어들 _ 비슷한 단어들 반복될 때, 다양하게 표현되는 단어들을 통해 풍성한 내용을 깨달을 수 있다. [ex / (시119)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말씀 등]
- 5) 관계(접속사) _ 접속사는 문맥의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 나타나는 강력한 세 단어를 꼽으라면 “그리고”와 “그러나”, “그러므로(그런즉)”이다.
- 6) 대조 및 평행구 _ 히브리 수사법에는 강조를 위해 평행법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동의적 평행, 반의적 평행 등)

⁵ 엡5:18_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 한 절을 가지고 시작하자

시편이나 잠언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와 같이 성경 한 권 전체가 사상문의 양식을 갖고 있는 것도 있다. 하지만, 사건문 속에 등장하는 노래나 기도 혹은 대화들도 사상문 읽기의 방법을 참고해 접근하면 본문 이해에 도움을 준다. 사상문 읽기 연습을 위해 한 구절을 가지고 시작해 보자.

[예문-5] 서신서 읽기 (롬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한 절을 곱씹어 보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를 깊은 묵상으로 인도한다. 많은 성경통독반이 통독 후 마음에 와 닿는 한 구절을 선택해 기도의 줄기로 삼기도 한다. 이 때 이 사상문 읽기 방법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본문의 깊은 맛을 맛보게 한다.

2) 히브리 시의 평행법을 이해하자

지난 강의에서 요약한 사상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사상문이란 기록자가 어떤 사상이나 메시지를 논술 혹은 운문(韻文, poetry)의 형태로 기록한 글의 형식을 넓게 묶은 개념이다. 따라서 사상문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기록자 또는 화자를 통해 어떤 메시지가 분명한 주제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임을 알고, 기록된 본문의 메시지(주제)를 파악하는데 관찰을 집중 한다.

[예문-6] 동의적 평행법 (시편15:1)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예문-7] 반의적 평행법 (잠언10:1)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앞의 간단한 평행법의 예처럼 히브리적 수사학에는 문학적 강조기법이 자주 사용된다. 평행법 외에도 몇몇 문학기법(교차대조법, 수미상관법 등)이 등장하지만, 심도 깊은 문형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평행법만 유심히 봐도 성경읽기에 매우 도움을 준다. 특히 시편, 잠언과 같은 구약 시가서를 읽을 때에는 시의 문학적 리듬을 느낄 수 있다. 히브리적 평행법에 대한 C. S. 루이스의 설명을 들어보자.

[참고-1] 성경은 결국 문학이기에 문학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에는 그보다 더 건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성경은 여러 종류의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에 맞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예가 시편입니다. 시편은 시로서 읽어야 합니다. 다른 서정시처럼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파격과 과장이 들어 있는, 논리적 구조보다는 정서적 구조를 갖고 있는 시로서 말입니다. ... 다행히 번역을 해도 그 형식적 특징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문법 양식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독자들도 아실 것입니다. 바로 학자들이 '평행법(parallelism)'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단어로 반복해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시편 2편 4절이 그 좋은 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어 /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2:4)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37:6)

(일반적인) 시를 음미할 수 있다면, 시편의 이런 특징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혹시 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적어도 시편의 언어적 특징을 이해하고, 진지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히브리 수사법 특히 시의 전통에 익숙한 분이므로, 이런 히브리 수사법을 잘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7:2)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7:7)

C. S. 루이스 《시편사색》 중

3)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보고, 접속사를 통해 문맥을 살펴보자

앞서 간단하게 살펴본 에베소서 2장 1~7절^[별첨-2 참고]을 통해 사상문 속에 반복되는 단어들과 구문을 찾는 것을 연습했다. 반복되는 단어들과 구문 그리고 접속사를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사상문의 메시지를 좀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보다 큰 덩어리인 에베소서 1장 3~23절을 통해 사상문의 특징을 한번 더 살펴보자^[별첨-4 참고]

B. 본문 해석(Interpretation)

1. '해석'이란 무엇인가?

해석이란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찾고 밝히는 과정이다. 많은 경우 앞서 관찰 과정에서 본문이 말

하고자 하는 의미를 어렵게 파악하게 된다. 특히 사상문의 경우 문맥을 파악하고 주제를 핵심 메시지를 탐구하는 과정에 해석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본문 해석은 독자의 주장을 올려 놓는 것이 아니다. 성경본문이 말하는 주제와 메시지를 앞 뒤 단락과 전체 문맥과 함께 살펴보면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

- 1) 문맥이 해석의 열쇠임을 기억하라.
- 2) 항상 읽은 성경의 총체적인 내용을 살피라.
- 3)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한다.(관주와 연관된 주제를 살핀다)
- 4) 성경이 가는 곳까지 나아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
- 5) 항상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다.
- 6) 각 구절에 대한 저자의 의도를 살피라
- 7) 건전하고 믿을만한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자신의 해석의 균형을 잃지 않는다.

2. 사건문 해석

사건문 해석은 '그 사건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사건문의 해석이다. **사건의 결론에 주목하고, 등장인물의 대화, 그리고 본문 속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성경의 메시지에 주목한다.** [ex / (출17:8-16)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 (삼상15:1-23) "아말렉을 진멸하라" →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

3. 사상문 해석

사상문의 해석은 그 양식의 특성상 관찰 과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난다. 문맥과 강조점을 확인한 후 성경 전체의 주제와 연관되어 살펴 보아야 한다. [ex / (롬8:1-2) "결코 정죄함이 없다" →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 (롬12:1-2) "너희 몸(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 →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C. 묵상과 적용(Application)

1. '묵상'이란 무엇인가?

묵상(meditation, application)이란 성경말씀을 곱씹고 곱씹어 그 말씀과 내 전인격이 공명되는 과정을 말한다. 묵상을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를 공유해야 한다. 곧 성경은 과거의 사건이나 인생에 도움을 주는 자기개발서가 아니다. 성경은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한 시대,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은 거대하고 포괄적인 이야기, 바로 메타 이야기(meta-story)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폭넓게 볼 때, 구원과 그 구원의 길,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기독교 공동체는 언제나 이 이야기를 단지 다른 여러 이야기 중의 하나쯤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삶의 이야기를 포용하는 혹은 포용할 수 있는 메타 내러티브로 읽었다. 우리가 이 형식의 폭넓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의 텍스트를 집중팔구 '영감'을 주는 일화로 다루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종교적 논박을 하

는 책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유진 피터슨 《이 책을 먹으라》 p.87)

성경읽기와 관찰과 해석 그리고 묵상은 서로 단절된 관문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냇물과 같다. 바른 성경읽기는 자연스럽게 묵상으로 이어지고 그 묵상은 다시 기도로 연결된다. 이 거대한 영적 생수의 흐름은 한번 물꼬가 트이면 많은 물소리와 같이 풍성하게 흐르기 시작한다. 성경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로 이어지는 변화를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신학자가 있다. 그는 탁월한 신학자요 설교자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McGrath)다. 묵상에 관한 그의 극적인 경험을 기록한 책의 한 대목을 직접 살펴 보기로 하자. 어떤 논리적인 글보다 묵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알리스터 맥그래스 《내 평생에 가는 길》 pp.25~32]

서구 기독교는 한 특정 사고방식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 사고 방식은 신앙과 경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각하게 제한했다. 흔히들 그것을 **계몽주의**라 부른다. 1750년경 시작되어 인간 이성의 위력을 크게 강조한 서구문화의 한 시기를 일컫는 말이다. 이 시기에는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고방식에 영향을 입은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더 잘 이해하라!” 이것이 계몽주의의 기본 가치다. 기독교의 기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성경지식이 많아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보를 보일 수 있다. 읽고 배우고 이해해야 한다는 기치는 확실히 여러 모로 도움이 됐다. 우선 기독교 신앙의 기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해와 지식이 넓어졌다.

그러나 **반면 영성의 빈곤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왜 그럴까?

상상과 감정이 희생될 만큼 이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상상과 감정은 우리 신앙생활에 온전히 화합돼야 할 하나님이 주신 두 기능이다. 영성이란 사고와 상상과 감정을 조화시켜 신앙의 부요함과 깊이를 온전히 깨우치는 것이다. 복음은 우리의 사고방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꿔 준다.

신앙생활 초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더 심사숙고하는 것인 줄 알았다. 좋은 결과도 있었다. 예컨대 나는 기독교의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고, 그런 방법을 몇 가지 찾아내 남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다. 그러나 곧 한계가 분명해졌다. 나는 벽에 부딪혔다. 내 신앙이 내 삶의 극히 일부분, 작은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했다.

내 상상과 경험도 성경의 개념에 영향을 입어야 하건만, 나는 그 중요성을 그때 처음 알았다. 지금도 이름을 발음하기 힘든 한 중세 작가의 글을 그때 읽었다. 기어트 저볼트 반 주트펜(Geert Zerbolt van Zutphen, 1367-1400)은 성경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가 아니라 묵상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묵상이란 읽거나 들은 내용을 마음속에 부지런히 되새기고 곰곰이 생각하여, 특정방향으로 내 감정에 불을 지피고 이해를 깨우는 과정이다.

이 말은 내 성경읽기에 새로운 빛과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나는 묵상이란 그리스도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불교의 관행인 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시1:2, 수1:8)는 구약기

자들의 잦은 말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목상이란 성경본문이 내게 영향을 입혀 “감정에 불을 지피고” - 이 얼마나 멋진 표현인가?- “이해를 깨우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만 아니라 가슴이 함께 섞여야 한다. 이해와 감정의 세계가 하나로 만난다. 거기서 훨씬 진실하고 만족스런 신앙생활의 길이 열린다.

나는 또 성경 이야기 속에 나 자신을 대입한다는 주제를 파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사건을 들려줄 때 내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나는 사건에 대한 사실적 지식만 파악하면 되는 줄 알았다. 예컨대 예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본문을 읽을 때면 지도에서 갈릴리를 찾을 줄 알고, 그곳의 문화사를 이해하고, 그것이 예수의 전반적 사역 흐름에 어떻게 맞아 들어 가는 지 배우고, 사건의 연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았다.(관찰과정)

그러나 그것은 정소 수집에 지나지 않았다. 내게 흥분이나 도전을 주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 복음서를 읽는 것이 약간 따분해지기까지 했다. 그런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때의 나 말고도 무수히 많을 것이다. 놀라운 감화를 줘야 할 성경말씀이 역사수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내가 배워서 사용하고 있던 방법에도 분명 문제가 있었다.

여기서 밝혀 둘 것이 있다. 나는 성경의 전폭적 신빙성과 무오성을 받아들이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 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라는 두 가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든든히 기초하고 있다. 문제는 내가 큰 전체 가운데 작은 일부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내 성경 읽기 방식에 문제성이 있었다. 성경을 기껏해야 사실적 진술의 연속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예수의 생애와 죽음에 관한 복음서 기사를 대하는 다른 방식을 접했다.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 온 방식인데, 다만 내가 몰랐던 것뿐이다. 중세 말 작가 색소니의 루돌프(Ludolf of Saxony)의 글을 읽던 중 아주 명확한 접근법을 알 수 있었다. 루돌프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의 생애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한다.

거룩한 잉태의 순간 또 하나의 증인처럼 천사와 함께 그곳에 있으라. 당신을 위해 아기를 잉태한 처녀 마리아와 함께 기뻐하라. 충실한 보호자처럼 그분의 출생과 하례 장면에 요셉과 함께 있으라. 동방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왕께 경배하라. 성전에서 부모를 거들어 아기를 안고 바치라. 기적을 베푸시는 선한 목자를 사도들과 함께 따라가라. 복된 어머니와 요한과 함께 그분의 죽음의 자리에 있으라. 그분께 연민을 품고 그분과 함께 슬퍼하라. 경건한 호기심으로 그분의 몸을 만지며, 당신을 위해 죽으신 구주의 상처를 하나하나 더듬어 보라.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분을 찾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때까지 찾으라.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선 것처럼 승천하시는 그분을 신기하게 바라 보라.

말과 행동의 증인으로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야 했다. 복음서 이야기가 새로운 흥분으로 읽히기 시작했다. 자신을 성경세계 속에 대입하려는 심리적 노력을 통해 사건의 내용이 한층 더 실감나게 다가왔다. 루돌프의 도움으로 나는 성경 이야기의 여러 중심 인물들 곁에 서서, 그들의 눈앞 - 그리고 내 눈앞 - 에 펼쳐지는 인간 구속의 드라마에 동참할 수 있었다.

이 작업을 통해 내 기도생활은 말할 수 없이 풍성해졌다. 단순히 개념 파악을 위해 성경을 읽던 것은 이제 끝났다. 나는 내 신앙이 기초가 된 역사적 사건들을 재현하고 있었다. 성경본문 묵상을 통해 나는 본문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루돌프는 자신의 접근의 일반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복음서 장면에서 열매를 거두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 앞에 직접 자리한 것처럼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린 채 생각과 감정과 애정과 기쁨을 다하여 자신을 드러야 한다. 이야기 내용을 내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듣는 것처럼 보고 들으라. 그 내용이야말로 그것을 간절히 상고하는 자에게 가장 달콤한 것이요, 체험으로 맛보는 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비록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마치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묵상해야 한다. 그럴 때 정녕 더 달게 다가온다. 이미 있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읽으라. 과거의 행동을 현재인 양 내 눈앞에 가져다 놓아라..

“생각과 감정과 애정과 기쁨을 다해야” 하다는 루돌프의 말뜻을 정확히 알 것 같았다. 복음서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자 예수의 성품과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피부로 생생히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기도로 이어졌다. 성경읽기가 성경묵상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다시 성경으로 드리는 기도가 됐다. 이 순서가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 내 틀과 목표가 되었다. 중세의 유명한 영성작가 귀고 2세(Guigo II)의 말을 나는 어느새 깨닫고 또 누리고 있었다.

묵상 없이 읽으면 황량하다.

읽지 않고 묵상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다.

묵상 없는 기도는 미지근하다.

이렇듯 성경과의 만남은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섰다. 그것은 본문을 통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되는 것이었고, 그럴 때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여기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아주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다.

- 1) **성경의 이미지를 대할 때**는 잠시 멈춰 본문을 생각 속에 그림으로 그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자신을 이미지 속에 대입하여 그 일부가 됨으로써 그 부요함과 함축된 의미를 경험해야 한다.
- 2) **성경의 이야기를 대할 때**는 그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구주를 목격한 자들 곁에 나란히 서야 한다. 복음서 이야기를 마친 현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묵상할 필요가 있다.
- 3) **성경의 개념이나 주제를 대할 때**는 이해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무기력한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생생한 실체가 되도록 내 삶에 적용해야 한다. 기독교는 개념만이 아니라 영적 실체와 변화다.

2. 적용이란 무엇인가?

적용이란 묵상한 본문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배역을 발견하는 일이다. 성경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포괄하는 메타 네러티브(meta-narrative)다. 상황과 조건은 다를지라도, 본문에 참여한 후 묵상되었다면, 자신의 정서와 삶에 주시는 적용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주중과제】** *디모데후서 읽기